

The Gospel of Mark: Sermon notes

Sermon 3

Title: "Hello Jesus"

Scripture: Mark 1:9-15

Date preached: September 11th 2022

Scripture: Mark 1:9-15

9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Jesus came from Nazareth of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10** And immediately, coming up from the water, He saw the heavens parting and the Spirit descending upon Him like a dove. **11** Then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12** Immediately the Spirit drove Him into the wilderness. **13** And He was there in the wilderness forty days, tempted by Satan, and was with the wild beasts; and the angels ministered to Him. **14** Now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came to Galilee,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15**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9 그 무렵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12** 그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이 거기서 **40** 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자 천사들이 시중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15**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Review

When I was a child one of the most exciting events in summer was the arrival of the ice cream van. The vans would drive around the neighbourhood and periodically stop for people to come and buy ice creams. If my mother was feeling particularly generous, or it wasn't too close to dinner she would give me some money and I could buy ice cream. How, you might wonder did people know the van was coming? Well, as it drove along the van played "music" or more accurately a particular set of ringing chimes. I don't know where these chimes came from but every ice cream van had a similar chime. You could hear the chimes from several streets away There was no mistaking what was coming. When you heard those chimes you knew that delicious ice cream was on the way.

Last week Mark introduced us to John the baptist. He was sent by God with a particular mission or purpose.

He was to herald or announce that very soon the long awaited messiah would step into the world.

He was in effect the "chimes" that warned people that something amazing was coming.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내가 어렸을 때 여름에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 중 하나는 아이스크림 밴의 도착이었습니다. 밴은 이웃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올 때까지 주기적으로 정차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관대하다고 느끼시거나 저녁 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나에게 약간의 돈을 주셨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밴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글쎄, 그것이 밴을 따라 운전하면서 "음악" 또는 더 정확하게는 특정 울리는 종소리를 연주했습니다. 나는 이 차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모든 아이스크림

뎨에는 비스뎡한 차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여러 거리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었을 때 뎡신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주에 마가는 우리에게 세레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곧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하거나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차임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Review

John the baptist is a fascinating character. In three of the four gospels he is something of an enigmatic mystery figure. In Matthew, Mark and John he appears fully formed in preaching and baptising mode. It is only in Luke's gospel that we learn about his amazing birth. Luke tells us about his aged parents Zechariah and Elizabeth and their desire for a child. One day whilst Zechariah is in the temple an angel appears to tell him he will have a son. He will be no ordinary child, he will grow up to serve God greatly and bring many lost sheep back into the fold. In order to do this he woul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rom birth. All of the angel's words came true. John indeed went on to serve the Lord and prepare many for the coming messiah.

As an adult John went to live in the Judean wilderness. It is a very dry and inhospitable area between Jerusalem and the dead sea. The reason for this is not explained, but we can certainly speculate. Most likely his parents had died and John desired the peace and solitude offered by the wilderness. He followed in a long line of prophets who were attracted by the peace and desolate beauty of the wilds. I'm sure he appreciated being alone with God and equally, I'm sure that God used this time to prepare him for his future mission.

At around the age of 30 John received God's call and began his public ministry. He came out of the hilly wilderness areas and began to teach and preach on the north eastern side of the dead sea and around the river Jordan.

In terms of his appearance, attitude and outlook he was very similar to the Old Testament prophet Elijah. Elijah too was a man content to live in wild places. This similarity was probably not deliberate. More likely it reflects both men's outlook. They both knew that faithfully serving God was more important than outward appearance or in owning possessions. John dressed in clothing woven from camel hair which was held in place by a leather belt. In other words he wore simple clothes that he had made himself. He survived on things that could be found, or caught in the wild. He wasn't interested in fancy or rich foods. In particular Mark tells that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He relied upon God to provide for his daily needs.

We might imagine that someone looking like John who had come out of the wild places would not attract people. In Korea, and many other places people place great importance on a person's dress or appearance. I have seen videos on YouTube of pastors preaching in T-shirts and jeans. I know in Korea that would not be widely accepted. We have certain expectations from the men God has called to ministry. One of these is that they dress well and look serious and professional.

However this was not an issue for John. People overlooked his shaggy, uncouth appearance. This was because he spoke with great authenticity. There was nothing fake or phoney about him. His words were the words of truth that clearly came from the Holy Spirit. The long period of silence was over. People recognised that once again God was speaking through a human prophet. Therefore the crowds flocked to hear him. Mark tells us that all Judea and Jerusalem came to listen. What was it that John preached?

His message in essence was simple. A new era was dawning. The messiah was coming. It was now time to repent and turn away from your sins.

It was time to re-orient yourself towards God. You were to do this by publicly confessing your sins and then to demonstrate your genuine repentance you were to be baptized.

John was rightly recognised in his own day as a great man. Jesus affirmed this by saying that no man born of woman had ever been greater than John (Matt 11:11). The fame and accolades however never went to John's head. He never forgot his place or role. He accepted that he was just a messenger or herald. The one coming was far superior to him in every way.

Today we will meet the one John heralded.

세례 요한은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네 복음서 중 세 복음서에서 그는 불가사의한 미스터리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는 설교와 세례의 형태로 완전히 형성되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그의 놀라운 탄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연로한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들이 원하는 자녀에 대해 알려줍니다. 어느 날 스가랴가 성전에 있는 동안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자라서 하나님을 크게 섬기고 잃어버린 많은 양들을 다시 우리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천사의 말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오실 메시지를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성인이 된 요한은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의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죽었고 존은 광야가 제공하는 평화와 고독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야생의 평화와 황량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예언자들의 긴 행렬을 따랐습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의 선교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요한은 30 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이 많은 광야에서 나와 사해 북동쪽과 요단 강 주변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외모, 태도, 관점에서 그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광야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사성은 아마도 의도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 남자의 견해를 반영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두 사람은 외모나 소유보다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가죽 벨트로 고정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만든 간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야생에서 발견되거나 잡힌 것들로 생존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거나 풍부한 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가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들에서 나온 요한과 같은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유튜브에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한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옷을 잘 입고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John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덩수룩하고 무례한 모습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큰 진정성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나 가짜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히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끝났다. 사람들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인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군중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마가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들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

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 당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것을 하고 당신의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기 위해 당신이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한은 당대에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마 11:11). 그러나 명성과 찬사는 결코 John 의 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령이나 전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시는 분은 모든 면에서 그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예고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9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Jesus came from Nazareth of Galilee, and was baptized by John in the Jordan.

It is time for Jesus to officially begin His public ministry.

The last mention we have of Jesus in any of the gospels was as a 12 year old boy at the temple in Jerusalem (Luke 2). Now approximately 18 years later He reappears ready to change forever human history.

What was He doing during those 18 years? The bible of course is silent on this subject. I think it is fair to assume that He was living and working as a carpenter in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Jewish boys typically followed their father's trade. This was because there were no trade schools or colleges in which to learn trades. You learnt by following your father around and picking up the necessary skills as you grew. Joseph was a carpenter (Mat 13:55) which meant more in those days than simply working with wood. It also embraced minor building or stone work. So Jesus most likely worked with his father and when Joseph died Jesus worked alone or with his brothers.

It was around the age of 30 that Jesus put aside his trade and devoted Himself to full time public ministry. Before this could take place two important events needed to happen. Mark very briefly tells us about them here. They are His baptism by John and His period of temptation by Satan. These events served to signal His arrival onto the stage of world history.

Let us look first at His baptism. Mark first tells us here that Jesus came down from His hom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his intentional act of travelling down to meet John provides affirmation that Jesus endorsed John's ministry. He made a special point of coming down to find John.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he wanted to receive His baptism from John.

Each of the gospel writers handles Jesus baptism in a slightly different way. Matthew reports that John protested Jesus baptism. He rightly identified Jesus as having no sin that needed repentance. He told Jesus that he should be the one being baptised not Jesus (Matt 3:14). Luke reports that John was thrown in prison before he says that Jesus was baptized. He also does not explicitly say that he was baptized by John (Luke 3:18-22). And John in his gospel records John the Baptist's testimony concerning the Spirit descending on Jesus without actually saying that John baptized Jesus (John 1:32-34).

Why this difference, or sensitivity over Jesus baptism? We have to appreciate the original readers of the gospels. They knew that John's baptism was intended for sinners. So this presented something of a challenge to early believers. They readily accepted that Jesus Christ was without sin. He was perfect. He had no sin for which He needed to repent. Therefore He didn't need John's baptism.

So the gospel writers are keen that no one wrongly conclude that Jesus "needed" John's baptism because He had sinned. So why then did Jesus come to John for baptism? The best explanation is that Jesus was baptised by John because He was doing the Father's will. He was acting in a way that pleased and honoured the Father. Also we should recognise that in submitting to John's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He was identifying Himself with sinful human beings.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12 세 소년이었습니다(누가복음 2 장). 약 18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준비를 하여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는 그 18 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로 살면서 일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을 따랐습니다. 무역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성장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목수였다(마 13:55). 이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나무로 일하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사소한 건물이나 석조 작업도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고 요셉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혼자 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업을 제쳐두고 공적 사역에 전념하신 것은 30 세 전후였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Mark 는 여기에 서 이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요한의 세례와 사탄의 시험 기간입니다. 이 사건들은 그분이 세계 역사의 무대에 오셨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세례를 살펴보자. 마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려가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을 지지했다는 확증을 제공합니다. 그는 요한을 찾기 위해 내려오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이 예수의 세례를 반대했다고 전한다. 그는 예수께서 회개자가 필요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올바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마 3:14). 누가는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또한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눅 3:18-22). 그리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실제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32-34). 왜 이러한 차이, 즉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최초 독자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신자들에게 뭔가 도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완벽했다. 그는 회개해야 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잘못 결론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가장 좋은 설명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요한의 세례에 복종함으로써 그가 자신을 죄 있는 인간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We are told here by Mark that Jesus was baptised in the Jordan river. The Jordan river is 251 km in length. I have to confess that when I saw it up close it was not very impressive. The sections that I saw were brown and very slow moving. The actual place in which Jesus was baptised is hotly disputed. No surprise about that in the middle east! The people of Israel claim it took place on Israeli territory and the people of Jordan claim it was in Jordan. The picture shown here is the official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Jordan. Let us read on.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요르단 강의 길이는 251km 입니다. 나는 내가 가까이서 보았을 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본 색션은 갈색이었고 매우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실제 장소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중동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요르단 사람들은 그것이 요르단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진은 요르단의 공식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10 And immediately, coming up from the water, He saw the heavens parting and the Spirit descending upon Him like a dove.

Mark here describes what happened following Jesus baptism. You will note here the first use of one of Mark's favourite words. It is the word “immediately.” In the Greek this is the word *eutheōs*. He will go on to use it a further 41 times!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it highlights the energetic driving pace of Mark's gospel.

Mark here describes Jesus rising up from the water and looking skywards. As He does so the heavens part, or they literally “split or rend” and the Holy Spirit in the form of a dove comes down. The word “parting” here may remind us of the prayer of the prophet Isaiah (Isaiah 64:1).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

That You would come down!

That the mountains might shake at Your presence

God is now answering Isaiah's prayer. He is indeed coming down. The descent of the Spirit serves as affirmation that the Father is anointing, and approving Christ's ministry. We should not think that prior to this moment Jesus was not being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But instead what is happening here is that Jesus is being empowered for His special messianic mission.

Let me just say a few things about the bird mentioned here. Doves are gentle, non-threatening birds, they do not resist, and they do not fight back. The dove was also a symbol of reconciliation with God. Remember Moses sending the dove from the ark. On the first occasion the bird cannot find dry land and returns to the ark. On the second occasion, seven days later it returned with an olive leaf in its beak. Ever since this event the dove with an olive leaf in its beak has been the emblem of peace. The Lord Jesus came to earth to b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Let's see what happens next.

여기 마가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Mark 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를 처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eutheos* 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41 번 더 사용할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마가복음의 활기찬 추진력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물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거나 문자 그대로 “쪼개지거나 찢기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이별"이라는 단어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이사야 64:1). 오, 당신이 하늘을 찢으시다니! 당신이 내려올 것이라고! 주의 임재 앞에서 산들이 흔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의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는 정말로 내려오고 있다. 성령의 강림은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승인하신다는 확증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 이전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특별한 메시아적 사명을 위해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새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둘기는 온화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새이며 저항하지 않으며 반격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또한 하나님과의 화

해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낸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새는 육지를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7일 후에 부리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부리에 올리브 잎이 달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1 Then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Jesus also heard a voice at this time. This is the first of the three heavenly voices to be heard during our Lord's Ministry. The other occasions were during His Transfiguration (Mark 9:7) and in the courts of the Temple during Holy Week (John 12:28). Mark doesn't say whether John or anyone else heard it. The Father speaks from heaven and affirms who Jesus is and provides His approval of His mission. The word “beloved” not only declares or expresses affection, but it also carries the meaning of “the only one.” Jesus' baptism served as His introduction to the wider world. It was His first official public appearance .

Let us read on.

이때 예수님도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역 중에 들리는 세 개의 하늘 음성 중 첫 번째 음성입니다. 다른 경우는 그분의 변형 동안(막 9:7)과 성주간(요 12:28) 동안 성전 뜰에서 있었습니다. 마크는 존이나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하시고 그의 사명을 승인하십니다.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는 애정을 표현하거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더 넓은 세상에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공식 공개 모습 이었습니다 . 계속 읽어봅시다.

12 Immediately the Spirit drove Him into the wilderness. 13 And He was there in the wilderness forty days, tempted by Satan, and was with the wild beasts; and the angels ministered to Him.

As I said two important events needed to take place before the start of Jesus' public ministry.

The first was His baptism. We turn now to the second. His period of trial or testing in the wilderness.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tempted” is *peirazo*, it means to “put someone or something through a trial to demonstrate its character.” When soldiers are being trained they are often put through extreme trials. They may have to survive in the mountains for many days, or endure long forced marches. These trials are intended to test their character and resolve. Will they grit it out and survive or will they give in and quit? If they make it through then they are tougher and better equipped to face the difficult challenges ahead. We can think about Jesus' trials in a similar way.

When we compare the account of Jesus' temptation in the other synoptic gospels we see something interesting. Luke devotes 13 verses to this event, Matthew 11 but Mark devotes just 2 verses to the Jesus temptation. Why does Mark pay so little attention to this important event?

Mark's focus seems simply to be on the fact that Jesus endured 40 days of continuous testing. He omits the actual details of what took place. He tells us that immediately after the baptism the Holy spirit drove Him out into the wild places where Jesus would spend the next 40 days. The number 40 is of course a recurring and significant biblical number. It is often used to indicate a specific or deliberate period of testing or judgment.

For example Moses lived for 40 years in Egypt and then 40 years in the wilderness before being called by God. In the great flood it rained for 40 days and 40 nights. The prophet Jonah warned ancient Nineveh, for 40 days. The prophet Ezekiel laid on His right side for 40 days to symbolize Judah's sins. Israel was in the wilderness 40 years.

So this period of 40 days is a deliberate time of testing for the Lord Jesus. Both Matthew and Luke describe the kinds of temptations Satan put before the Lord Jesus. Jesus of course resists whatever temptation the evil one puts before Him. This endorses his qualifications to be the second Adam. The first Adam failed the test and plunged the whole human race into sin. Not so the second Adam.

A word in passing about the wild beasts Mark mentions. Today Israel is not home to many truly wild and dangerous beasts. However in Jesus day the wilderness was home to bears, leopards, wolves, cobras, desert vipers, scorpions, hyenas, jackals, desert foxes, wild boars and lions. However Mark tells us that Jesus was “with” the wild beasts. This means He lived alongside and in harmony with them. Again Mark skilfully draws us back to the creation event. In the beginning human beings and animals lived peacefully and happily together. It was only after the fall and the curse that animals became scared of us, or wanted to eat one another and sometimes us. Again Mark shows Jesus bringing about peaceful reconciliation. During this time Jesus is ministered to, or served by the angels. Let us continue.

내가 말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세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광야에서 시련이나 시험을 받는 기간. 여기에서 “유혹”에 대해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peirazo)인데, 이는 “어떤 사람이나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그 성격을 나타내다”를 의미합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받을 때 종종 극한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산에서 살아남거나 긴 강제 행군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그들의 성격과 결의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악물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굴복하고 그만둘 것인가? 그들이 통과한다면 앞으로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더 강하고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시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를 비교할 때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마태복음 11 장)에 대해 13 절을 할애하지만 마가는 예수의 유혹에 대해 2 절만 할애합니다. 마가는 왜 이 중요한 사건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초점은 단순히 예수님이 40 일 동안 계속되는 시험을 견디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의 실제 세부 사항을 생략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이 예수를 40 일 동안 보내실 광야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40 이라는 숫자는 물론 반복되는 중요한 성경적 숫자입니다. 그것은 종종 테스트 또는 판단의 특징 또는 의도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애굽에서 40 년을 살았고 그 후 광야에서 40 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홍수 때 40 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선지자 요나는 고대 니느웨에 40 일 동안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상징하기 위해 40 일 동안 오른편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40 일이라는 기간은 주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적인 시간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모두 사탄이 주 예수님 앞에 가한 시험의 종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악한 자가 자신에게 가하는 어떤 시험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아담이 되기 위한 그의 자격을 보증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고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아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가 언급한 야수에 대해 한 마디.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야수와 위험한 짐승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에 광야는 곰, 표범, 늑대, 코브라, 사막 독사, 전갈, 하이에나, 자칼, 사막 여우, 멧돼지 및 사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들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조화를 이

루며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Mark 는 우리를 창조 사건으로 능숙하게 이끅니다. 태초에 인간과 동물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거나 서로, 때로는 우리를 먹고 싶어하는 것은 타락과 저주 이후였습니다. 다시 마가는 예수께서 평화로운 화해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성역을 받거나 섬기게 됩니다. 계속하자.

14 Now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came to Galilee,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15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Following His baptism and period of testing Jesus remained preaching and teaching in Judea for some considerable time. However this came to an end with the arrest and imprisonment of John the baptist. Herod Antipas had arrested and imprisoned John.

We are told the details surrounding this in Mark chapter 6 so I won't talk about them here. Jesus, knowing that it was not the time for a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authorities decided to leave Judea and return to the region of Galilee. This made good sense. It was farther away from the hostile Pharisees and chief priests who were based in Jerusalem. In Galilee Jesus could move around freely and openly teach and preach. What was it that Jesus preached?

We are told by Mark that He preache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Jesus told people about the "good news" from God. The "good news" was that God's kingdom had arrived. His actual words were the "**time is fulfilled.**" There are two ancient Greek words that can be translated *time*. One is *chronos*, meaning simple chronological time.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The other word is *kairos*, meaning "the right or the decisive time." Can you guess which word Jesus used? It was the second, *kairos*. The Lord Jesus was announcing that this was the "right or decisive time."

The ancient people of Israel were very different to most people today. Most people today have very vague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They live very much in the moment. Things were different at the time of Jesus. The Jewish people were deeply unhappy. They longed for the promised Kingdom of God to begin. Most hoped for, and anticipated a political kingdom. They desired the emergence of a political messiah who would lead them to freedom from their oppressors. This was not what Jesus brought. He was talking about a spiritual kingdom that existed in the spiritual realm. In order to be ready to enter this kingdom one needed to be spiritually not physically prepared. This required that you confess and repent of your sins. This message meshed with what John the baptist taught. God requires that we own up to the sinful rebellious hearts we all have. We are then to confess our guilt to God and turn from our sins and towards God and what pleases Him.

However repentance alone is not sufficient. Certainly it is right and proper that we acknowledge our sins and turn from them towards God. However that is just the first step. Following this we must then put our faith and trust in the one who God sent to provide salvation;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the full gospel message. That is the message Jesus came to proclaim. It is the message that we today are called to proclaim.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유대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투옥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체포하고 투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둘러싼 세부 사항을 마가복음 6 장에서 들었으므로 여기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국과 직접 대결할 때가 아님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근거한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다니시며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좋은 소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제 말씀은 “때가 왔다”였습니다. 시간을 번역할 수 있는 두 개의 고대 그리스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입니다. 지금 몇 시지? 7시입니다.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kairos)로 “적절하거나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였다, 카이로스. 주 예수님은 지금이 “적절하거나 결정적인 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매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에 아주 많이 산다.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대 민족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하느님의 왕국이 시작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왕국을 바랐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영적인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면 육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많은 반역적인 마음까지 소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옳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완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기 위해 오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메시지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1 Is God well pleased by us?

When the Lord Jesus rose from the water of the Jordan river God the Father spoke. He announced that Jesus was His beloved son, and he was pleased with Him. When we confess, repent and put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are adopted into God's family. He becomes our heavenly Father, and we become His sons and daughters by adoption. We now have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at go along with that.

As parents here on earth we have ups and downs with our children. At times, they make us pleased and proud. At other times we may be disappointed or embarrassed by them. I'm sure that in some ways God has the same kinds of feelings about us. At times He is pleased that we are good and faithful children. At other times our actions, thoughts and words dishonour Him. Jesus of course presents to us the model of the perfect son. Loyal, loving faithful and obedient. If we are truly to please God we are to try and live in a similar way to the Lord Jesus. May our desire be to live lives that please God.

주 예수께서 요단강 물에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했고 그는 그를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양자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와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실망하거나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같은 종류의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가 착하고 충실한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행동, 생각, 말이 그분을 옥되게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완전한 아들의 본을 보여 주십니다.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으며 충실하고 순종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 Are we resisting temptations

Mark's account does not give us the details about how Satan tempted Jesus in the wilderness. We know from Matthew and Luke however that Satan tempted Jesus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Material possessions, power and prestige. We too often have these same temptations. We are tempted to do, think, say and possess things that we should not.

The Lord Jesus as always models for us how to respond to temptations. Whenever He was tempted He turned to the bible. He rested upon God's revealed Word. Satan is very smart and cunning. He tailors the temptations he puts before us in a unique and individual way. The things he tempts you with may well differ from the things he tempts me with. However our response should always be the same. We are to stand firmly upon God's Word and rely upon His power to help us resist temptation.

마가의 기록은 사탄이 광야에서 어떻게 예수를 시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사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압니다. 물질적 소유, 권력 및 명성. 우리는 너무 자주 이와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소유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성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사탄은 매우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그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을 조정합니다. 그가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그가 나를 유혹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3 Are we properly proclaiming the gospel?

A number of years ago I was asked by a church to help them with their evangelism program. They had trained some members to go out onto the streets of Anyang and share the gospel with foreigners in English. They wanted to practice on me, and afterwards get my feedback. The people had studied hard. I could not fault their enthusiasm and passion. However there were serious issues. The major problem lay in the content of their gospel presentation. There was lots of talk about how Jesus loves you, and how He wants you to have a good life but no talk about sin and the necessity for repentance. Of course, I understood their approach. It's not easy to confront people on the street and tell them they are wicked sinners who are going to hell even if this is the truth.

In today's passage we read about how Jesus proclaimed the gospel. It's really very simple, are you ready? Number one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Literally the time is now, don't delay. Number two repent. You are a sinner. Your sins will only result in death. You must acknowledge them, turn from them and reorient yourself towards God. Number three believe in the gospel. The gospel refers to God's means of saving people. The good news is that God sent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o save lost sinners. Reject Him and face the consequences. Put your faith in Him alone for your

salvation and enjoy eternal life. Let us have both a passion to share the gospel, and when we do to properly proclaim the gospel in its wonderful fullness.

몇 년 전 나는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몇몇 회원들을 훈련시켜 안양의 거리로 나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연습하고 나중에 내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열정과 열정을 탓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죄와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는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을 대면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지옥에 가는 사악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읽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는 죽음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수단을 가리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그 결과에 직면하십시오. 구원을 위해 그분께만 믿음을 두고 영생을 누리십시오.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그 놀라운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도록 합시다.

